

<교수협의회장 회고록: 1993년 교수협의회보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교수협회의 회고

高光昱 教授/17대 副會長·會長職務代理

解放后 오늘에 이르기까지 47年間 우리나라 文化·社會·政治·環境을 살펴볼 때 그 變遷過程이 엄청나게 急變轉하여 無常함을 實感케 하여주고 있다.

이에 수반하여 우리의 價値觀도 많은 混沌을 거듭하였음을 不定할 수 없는 形便이기도 하다. 그 나라의 知性과 知識人을 大辯한다는 大學의 教授構成員으로서 우리나라 學問界에 있어 學風造成, 價値觀定立, 位相提高에 있어 어떠한 役割을 우리는 遂行하고 機能向上에 이바지해 왔는가의 물음에 깊은 自省의 여지는 없겠는가 하고 自責感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一面도 있을 것이다.

會長職務代理 當時의 狀況

제 3공화국의 유신체제말기에 1979년 대통령이 시해되어 持續됐던 禁壓으로부터 급작스러운 解放을 맞이하여 일시에 민주화의 꽃이 피는 듯한 1980년 소위 “서울의 봄”을 謳歌할 무렵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가 새로 거듭나서 발족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의과대학을 대표한다는 허울속에 나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채 의대를 대표하는 본부교수협의회원으로 천거되어 본의 아니게 참여하게 되었으며, 연건캠퍼스를 대표한다는 視覺에서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부회장으로 강요되다시피 하여 맡게 되었다.

억압으로부터의 解放, 要求不滿의 噴出, 正義具現, 民主化의 各委員任들의 목소리의 강도가 너무나 克明하게 표출되었으며, 이 상황은 그 전에 발족한 서울대학교 學生對策委員會(각 대학에서 1명씩 참여)의 한 사람으로서 當面하였던 學生自治會 主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을 想到할 때 비교적 보수적 기질의 의학캠퍼스의 情緒와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었음을 솔직하게 부언 해두는 바 이기도하다.

그 당시 서울의대 도서관에 붙여진 붉은 글씨의 所謂 “大字報”는 해방 후 1945, 1946년 청량리 예과 벽보에 부쳐진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一面 민주화의 물결이 또 다른 한편으로는 念慮스러운 過激한 口號가 展烈되었던 것과 軌를 같이 한 思潮였으며 그야말로 “서울의 봄”이라 할 수 있었다.

1980년 5월 15일 전후경이라 생각되는데 소위 교수시국선언의 서명운동이 전개되면서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하였는데 과연 5월 17일 계엄령이 발표되면서 교수협회의 활동이 휴면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법대의 金부회장이 자진 사퇴하고, 본인도 사퇴서를 가지고 邊회장에 갔더니, 邊회장 자신이 이미 勸告辭職과 教授辭職이 강요당하고 있다하며 교수협회의 命脈을 유지키 위하여 나보고 그대로 남아 協議會를 살려야 할 것이 아니냐고 하는 상의 끝에 또 한번 본의 아니게 회장직무대리를 맡게 되어 무려 7년간 협의회를 維持하게 되는 變則的 位置에 놓이게 되었다.

戒嚴下에 활동이 중지된 상황에서 自爆하려고 이사회를 召集하였으나, 이것 또한 강요에 의하여 사임도 해산도 못하게 되었던 상황하에 있었다.

會長職務代理로서 무엇을 하였는가?

계엄령이 발효된 후 얼마 안가서 前述한 바와 같이 협의회를 해산하려고 모였던 것이 첫 번째 이사회였으나, 해산도 사임도 못하고 말았다.

1987년 6·3선언 후, 제5共和國末葉 대통령선거운동이 시작될 무렵, 가을에 협의회가 실제적으로 재건될 때 이사회가 개최되어 앞으로의 진로와 회장선출을 하기로 모인 것이 7년간에 두 번째 열린 이사회였으며, 이것을 보아도 그간에 사정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그간 활동으로는 연간행사인 연2회 열리는 정구대회 후원과, 1년에 두 번 舉行되는 교수 정년퇴임식에서 드리는 교수협의회 膳物贈呈을 해 왔을 따름이고, 그 외 활동은 一切 휴면 상태였다.

첫 모임에 百家齊鳴하였던 이사님들도 움치고만 있어야 할 형편이었고, 회장직무대리도 아무런 일을 하지 못했음이 매우 부끄러웠으나 어찌할 수가 없었던 形態이었다.

敎授協議會의 目的은 무엇이어야 할까?

교수협의회 활동이 그 시대의 정치상황에 따라 浮流를 같이 하고 있는 約 20여년간의 협의회 過去歷, 運命이라 할까 하는 발자취를 回顧해 볼 때, 새삼스러이 교수협의회 목적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데 대하여 좀 더 선명하고 구체적인 것으로 合議導出되어 克明하게 明文化되어야 하며, 그 목적에 충실함이 어떠할까 생각된다.

역사의 교훈처럼 恒常 外侵은 內憂에서 起因한다는 옛 賢人의 말과도 같이 역사는 되풀이한다지만, 이와 같은 교수협의회 역사는 반복되어서는 안되었기에 아쉬운 마음을 적어본다.

1945년 4월봄 청운의 꿈을 안고 예과에 들어와 1991년 8월 정년이 되어 교문을 떠나는 46년간 우리가 걸어온 길은 거듭된 전쟁과 정변으로 점철된 긴 반세기였으며, 이러한 과정에 높고도 높은 학문의 길은 멀기도 멀기만 하다는 것을 재삼 느끼면서 우리는 역사의 뒤편길에 파묻혀 가고 있다.

앞으로 아무쪼록 榮光의 길이 되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면서 두서없는 말을 맺는다.